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프랑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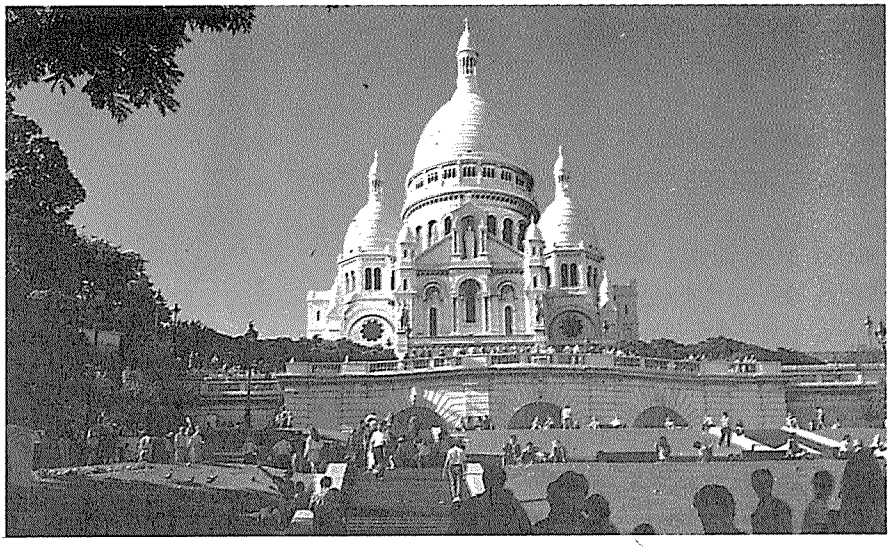
배 순 덕
화가 · 호는창랑

예술가들과 떠돌이 보헤미안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몽마르트르는 말만 듣고 상상해왔던 것만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가파른 비탈길 양 옆으로 빼꼭히 들어 차 있는 기념품 상점과, 상점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즐비하게 앉아 있는 흑인 노점상들, 사람이 북적대는 곳마다 함께 북적대는 갖가지 잡상인들.

안내인은 끊임없이, 떠돌이 노점상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으니 지갑과 여권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지나가는 사람 앞을 서슴없이 가로막고 뒷걸음질을 하며 얼굴을 강제로 그려대는 초상화가는 그림에의 열정과 궁핍한 생활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야만 했던 그 옛날의 순수한 화가의 느낌이 아니었다.

원래 「몽마르트르」라는 말은 '생드니'라는 사람이 순교한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흰색의 「사크레 쾨르」 성당이 우뚝 서 있다. 보불전쟁이 끝난 후인 1880년대 초에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당시 가톨릭 교도들의 기부금을 모아 지은 성당이라는데, 비잔틴 양식의 새하얀색 도움을 가진 건물로 40여년이나 걸려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사원의 주변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음료수와 엽서와 그 밖에 잡다한 것을 파는 행상들이 들끓었다. 한 낮의 햇볕에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 밖과는 달리 어두컴컴한 교회 안은 촛불의 행렬과 기도와 소리없이 오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



▲몽마르트르 언덕의「사크레 쾨르」성당. 비잔틴 양식의 세개의 돔을 가진 사크레쾨르 성당은 몽마르트르 언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서 있었다.

고 있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 사원앞 잔디밭 모서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잔디밭 여기저기에는 찢어진 여권, 지갑, 필름통 등이 나뒹굴고 있어 안내인이 지갑을 조심하라고 입이 닳도록 하던 말이 빈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화가 고호가 최고의 명작들을 그렸던 곳은 파리에서 좀 떨어진 와즈강변의 작은 마을「쉬즈와르」이다. 1890년 7월 스스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 37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고호는 그 암울한 빈곤과 고독과 광기 속에서도 가끔씩 깨어나는 천재성으로 그 곳에서 최후의 명작을 그렸었다. 그 고호의 그림이 보고싶어서 광장 한 복판에 유리 피라밋이 우뚝 서 있는 루브르 미술관 앞에 줄을 섰다. 매표구 앞에 길게 이어진 관람객의 줄서기가 끝이 안보일 지경이다. 한시간을 기다렸으나 내 차례는 까마득하기만 하다.

'안되겠다.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야지'

루브르처럼 고대 오리엔트나 이집트, 로마 등지의 예술품은 없지만, 오르세(Musee d Orsay)에도 고호의 그림은 있지 아니한가?

오르세에는 중세이후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많은 작품들이 있고, 역사적인 미술작품들을 시대나 주의별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 대부분이 그곳에 있었다. 전관을 빠짐없이 구경하려면 사나흘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입구에서 먼저 미술관 안내도를 구입했다. 그다음에는 내가 우선 보고 싶은 그림들을 찾아서 미로

같은 방을 찾아다녔다.

밀레나 렘브란드 · 마네 · 모네 · 세잔 · 고호 · 고갱 · 르느와르 · 드가 · 시슬레 · 피사로 등 … 그들의 주옥같은 작품과의 만남은 짧은 순간이지만 오랜동안 연정을 품어왔던 연인과의 만남처럼 짜릿하고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말년의 고독과 광기에 사로잡혀서도 끊임없이 캔바스와 씨름을 했던 천재 화가 고호와 고갱의 그림은 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불타는 그들의 예술혼 만큼이나 선명한 색채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림을 찾아 미술관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이상한 들뜸으로 울렁거리던 가슴은 그날 오후 내내 지속되었다. 그 기분을 진정하느라 에펠탑이 바라다보이는 공원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하오의 비스듬한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푸른 잔디 위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른하고 지친 상태였는데도 알 수 없는 포만감이 온 몸을 휩쌌다. 느릿한 걸음으로 공원 안을 오고 가는 수 많은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의 모습은 더 없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렇게 한가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발길 뒤로 집을 나온 개들이 어슬렁거리며 공원 안을 배회하고 있다.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지치고 풀 죽은 표정으로 이곳 저곳 쓰레기통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연민을 느끼게 했다. 그러한 개들의 대부분이 주인들이 바캉스를 떠나며 처리하기가 곤

▲에펠탑.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기념으로 귀스타브 에펠에 의하여 건립된 320.75m높이의 철로 만든 기념탑이다.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파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었다.

란하여 거리로 내 몰거나 놓아버린 개들이라고 한다.

보신탕을 먹는다고 눈총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아직은 제 편리한대로 정주고 키우던 개를 버리거나 거리로 내 몰아 저 처럼 거렁뱅이로 만드는 법은 없다. 그런데 정작 동물보호다 자연을 사랑한다 피켓을 높이 들고 목청껏 외쳐대는 저들 국민들의 가슴 한켠에는, 자신에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가족처럼 키우던 개마저도 서슴없이 거리로 내 모는 비정함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가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해져 선진국이 되는건 좋지만, 장차 내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행여 저런 잘못된 습성까지 선진국을 닮게 되는건 아닐까 우려가 앞섰다.